

지역 소식

주한 외국 대사 및 범종교 지도자들과의 우정 증진 만찬

전 세계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고난에 처한 이들을 위한 인도주의 봉사와 협력을 되새기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저녁,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주최로 인도주의 활동과 협력을 위한 우정 증진 만찬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렸다. 지역 회장단은 사전에 초대장을 보내어 주한 외교관 및 범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했으며, 홍보부 및 홍보 위원회가 이 모임을 세밀히 준비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인도주의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것이었다. 교회는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과 조력 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글로벌 지도자 및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북 아시아 지역 회장인 로버트 시 게이 장로 부부, 제1보좌 가스히코 야마시타 장로 부부, 제2보좌 최윤환 장로 부부가 참석하여 도착하는 손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환영 인사를 나누었다.

가나, 루마니아, 미국, 벨기에, 스웨덴, 이스라엘, 파라과이,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등 9개국의 주한 외교관들과, 대종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 천도교 등 범종교 지도자 및 학자들이 이 만찬





모임에 참석했다. 교회 회원 25명을 포함 6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했다.

방송인이자 국제 변호사인 로버트 할리 형제가 사회를 보며, 모임을 편안하고 유쾌하게 이끌었다. 환대에 즐거워하며, 참석자들은 편안하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준비된 만찬 모임을 즐겼다.

특히 분위기를 북돋웠던 것 중 하나는 음악 순서였다. 국악단이 한국 전통 악기로 전통 음악과 함께 비틀스 메들리를 연주하며 특히 외국인 대사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포크송 가수 김은영 자매의 재즈 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럴도 인기를 끌어 앙코르를 받았다.

교회 지도자와 모든 외교 관계자, 종교

지도자들은 인도주의적 구조와 봉사 활동이 이들의 공통된 목표임을 서로 확인했다. 또한 이를 위한 서로의 노력과 도움에 찬사를 보내며 서로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다.

연사로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로버트 시 게이 장로는 교회가 대상에 관계없이 고통받는 이들 모두에게 언제나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이러한 노력에 참석자들이 계속해서 동참해 주도록 독려했다. 게이 장로는 교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관한 영상을 보여준 후, 영상 속 장면과 호텔 창 밖의 야경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멋진 야경은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진짜 세상은 바로 저들처럼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곳, 여러분의 고국, 그 어디에서든, 여러분이 그들을 돕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가치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나누고 우정을 증진하는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이러한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모임 후에는 훌륭한 모임에 감사로 표했으며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과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모임은 인도주의적 노력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전 세계 구호 활동에 힘을 보탬 것이다. ■

LDS 도구—구도자를 해당 지역의 선교사와 연결해주는 기능

“혹시 신촌 와드 선교사 연락처 아시는 분?”

물 리 사는 지인이나 구도자를 해당 지역의 선교사와 연결해주고 싶을 때 흔히 하는 질문이다. 이제는 선교사의 연락처를 구하지 못해도 연결해줄 수 있다. “LDS 도구” 앱에 새로운 기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음 안내를 따라 해 본다.(휴대폰 기종에 따라 지원 예정일 수 있음)

따라 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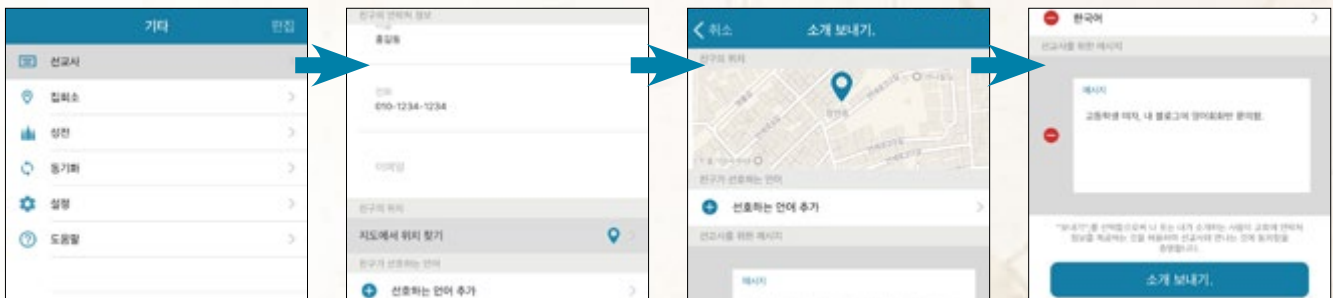
- 앱을 실행하여 “선교사” > “소개 보내기” 메뉴를 누른다.
- 친구의 연락처 정보에 이름, 전화번호, 선호하는 언어 등을 입력한다.
- 친구의 위치로 들어가 친구의 주소 또는 지역을 선택한다.
- “메시지 추가”를 눌러, 구도자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영어 회화 관심’, ‘종교를 찾는 중’, ‘오래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다닌 적이 있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소개 보내기” 버튼을 눌러 완료하면, 해당 지역 선교사의 휴대폰으로 즉시 전달된다. ■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 이 영감 받은 도구들을 적절히 사용할 능력을 키우기를 기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홍수로 땅을 휩쓸게 하는 일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를 덮으십시오”, *리아호나*, 2015년 8월호, 49~53쪽)



2018 와서 나를 따르라—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물 2018년부터 매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의 공과가 변경되었다. 2017년 11월호 *리아호나* 137~144쪽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다.

- 첫째 일요일:** 평소처럼 정원회별로 모이되 회장단이나 그룹 지도자들이 정원회 회원 모두와 함께 평의회를 연다. 교사가 가르치는 공과 모임은 없다. 각 와드/지부가 가진 책임과 기회,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한다. 평의회 주제의 예시나 모임 준비에 대한 안내는 같은 호

139~140쪽을 참고한다.

- 둘째, 셋째 일요일:** 교사가 공과를 진행한다. 공과 주제는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 나온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토론할 수 있으며 회장단 또는 그룹 지도자가 선별하거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정해줄 수도 있다. 같은 호 141~143쪽에는 사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제안되어 있다.
- 넷째 일요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선별한 특별 주제를 토론하는데,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주제는 ‘안식일’이다.

지도자 또는 교사는 같은 호 144쪽에 제안된 교리 및 학습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몇 개를 골라 합치거나, 반원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새로 만들 수도 있다.

- 다섯째 일요일:** 감독단에서 정한 주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

이 자료들을 복음자료실 앱과 인터넷 페이지 comefollowme.lds.org에서 찾아본다.



내 영혼을 진정으로 달래주는 것

서울 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 김민서 자매

“이 곳이 제가 평생 몸담을 참된 교회라면 여기 계속 앉아있게 해주시고, 참된 교회가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는 내가 2017년 초부터 6개월간 교회 세 곳을 전전해가며 드렸던 기도 내용이었다. 원래 나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던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다. 성인이 되어 여러 교회의 기도 모임, 철야 예배, 성가대 등에 참여하며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얻었지만, 정작 ‘평생 몸담을 교회’라고 할 만한 교회는 오랜 세월 찾지 못하고 있었다.

‘몰몬’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4년 전, 사업 파트너로 김정구 형제를 만났을 때부터였다. 나는 커피 애호가로, 하루 서너 잔씩 커피를 마셨다. 달콤한 커피 한잔은 치친 ‘영혼을 달래주는’ 위로와 같은 것이었다. 김정구 형제에게도 커피를 권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몰몬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처음에는 다소 감정이 상하기도 했으나 ‘도대체 몰몬은 어떤 사람들이지?’하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몰몬에 대한 주변의 편견 섞인 평가와는 다르게, 그는 가정에 충실하고, 신념을 굳게 지키려 하며, 자신보다는 타인을 위한 봉사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와 알고 지내길 2년째, 김정구 형제는 내게 선교사를 만나보지 않았냐고 권유하였다. 평일에 선교사와 한 번 만난

후, 계속된 호기심에 혼자서 일요일에 교회를 방문했다. 용기를 내어 예배당에 들어섰지만, 생소한 예배 형식과 찬송가 등 다른 분위기가 낯설었다. 무엇보다도 다른 교회에서 해주던 것과는 달리, 그곳에선 아무도 손을 잡아 주지 않아 다소 멧쩍어 그냥 나오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호기심은 식어버리는 듯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나는 여전히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다. 2017년이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몇 개월간 다른 세 교회에 참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이 보낸, 부천 와드 신축을 축하하는 문화의 밤 행사에 초대한다는 문자였다. 2년 전 선교사를 만났을 때 남겼던 전화번호로 선교사들이 혹시나 하여 초대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문자를 받아 몰몬 집회소에 갔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다. 초대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5월경 교회를 다시 방문할 결심을 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가 아니었다. ‘평생 몸담을 교회’를 찾는 기도 목록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도 포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가보기 전에 6개월간 계속해온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드렸다. 교회 문을 들어서자마자 순간 평생 몸담을 교회가 이곳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따스함과 평화로운 기운이 내 몸을 감싸 안았다. 남녀노소 단정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 회원들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평신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신도가 평등한 곳임을 느꼈다. 이후에 회복된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찾던 교회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 나는 2017년 7월 16일 김정구 형제로부터 침례를 받았다. 6개월 이상 간구한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이었다.

김정구 형제가 용감하게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직접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 참조)고 권유하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이곳의 진정한 모습은 모른 채, 주변의 편견에 휩쓸려 손가락질했을지 모른다. 직접 교회에 참석하여 복음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침례식도 가보고, 복음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회원들을 곁에서 봤을 때 비로소 교회의 참모습을 알 수 있었다.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밖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와서 보라”고. 그냥 왔다 같지언정 와서 한번 보라고 말이다.

침례받고 얼마 후, 하루 서너 잔씩 마시던 고급 커피를 미련 없이 내다 버렸다. 내 영혼을 진정으로 달래주는 것은 한 잔의 커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었다. ■



담대한 권유와 꾸준한 사랑이 맺은 결실

2017년 지역 목표를 통해 북 아시아 지역의 모든 회원은 다른 사람을 한 명씩 보살피며 사랑할 것과 복음에 대해 배우도록 권유하기를 권고받았다. 이를 실천해온 온양 지부 김춘희 자매는 남미경 자매의 재활동화와 그 자녀들의 침례라는 결실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다.

“여행도 같이 갈 정도로 절친한 사이예요. 조금 멀리 살지만 최근에도 우리 집에 왔다 갔죠.” 김춘희 자매는 남미경 자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우정을 표현했다.

두 자매의 인연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춘희 자매가 선교사로 봉사했던 강원도의 태백 지부에서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청년 남미경 자매를 처음 만났다. 세월이 흘러 남미경 자매는 세 자녀의 엄마가 되었지만 둘째를 출산하고부터 남편의 도움 없이 아이들과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결국 셋째가 태어나자 드문드문 참석하던 발길마저 끊기게 되었다. 그 후 남편의 직장 사정으로 충남 온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온양에 살고 있던 김춘희 자매는 태백의 회원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된다.

“우연히 제가 온양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춘희 언니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낯선 곳에 가는 것이 꺼려져 망설였지만 초대해준 언니의 성의가 고마워 거절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만난 첫날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춘희 자매는 선교사업 당시 태백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며 함께 추억을 회상했다. 그것을 시작으로

김춘희 자매는 남미경 자매에게 종종 연락을 취했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난 남미경 자매의 첫째 자녀가 복음에 대해 배우고 함께 교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긴 시간 떠나있던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홉 살, 여섯 살, 세 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전쟁이었어요. 좋은 말씀을 듣고 제 신앙의 씨앗에 물을 뿌려야 하는데 모임 내내 막내와 씨름 하다 보면 말씀이 귀에 들어올 틈이 없었죠.”

김춘희 자매는 힘든 시기를 함께하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김춘희 자매는 당시의 상황을 겸손히 전했다.

“지속해서 식사 초대도 하고 교류하면서 선교사가 아닌 친언니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복음 안에서 다시금 돈독한 자매애를 느끼면서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했죠.”

남미경 자매는 세 자녀를 복음 속에서 키우겠다는 소망과 회원들의 사랑으로 점차 강화되었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는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키려 애썼던 것이 신앙의 뿌리가 되어 지금의 나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남미경 자매는 안식일을 지키므로서 가정과 자녀에게 돌아온 축복의 결실이, 김춘희 자매의 용기 있는 권유와 사랑

덕분이라 말한다. “교회 가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 네가 힘들어 할까봐 ...” 라고 고백하던 언니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다시 나오기를 얼마나 맘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눈물이 나네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권유해 준 언니에게 감사합니다.”

남미경 자매는 2017년 11월 현재 체천 지부 청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

아래 첫 번째 사진: 최근 남미경(왼쪽) 자매, 김춘희(오른쪽) 자매의 모습.
두 번째, 세 번째 사진: 김춘희 자매가 선교사로 봉사할 당시 태백에서 함께 찍은 사진



14년만에 드린 영터리 기도

서울 동 스테이크 의정부 와드 이형신 형제



실 내 농구 코트가 흔치 않았던 1990년, 당시 고3이었던 나는 농구를 하기 위해 처음 교회에 갔고, 곧

침례를 받고 11년이라는 꽤 긴 세월 동안 교회에 다녔다. 선교사님들과 회원들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배우는 것이 좋았다. 시련이 닥쳤을 때 복음을 통해 큰 위안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개인 기도와 경전 읽기를 해본 적은 거의 없었다. 개인적인 신앙이 아닌, 다른 이들의 선한 영향력에 의지해 교회를 다녔던 시기였다.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된 것은 다른 누구의 탓도, 교회의 탓도 아닌 나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2000년 5월경 비활동이 되면서 나는 차차 술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 사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표현이 맞겠다. 회원들의 몇 차례 연락도 모두 거부했다. 시련이 있을 때도 오로지 술에 의지하여 힘든 걸 달래려 했다. 밤새 술을 마시다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일도 잦았다.

나는 스스로 다시 교회에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자녀만은 꼭 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함께, 앞이 보이지 않는 듯한 내 인생 전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내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한 마음이었나보다.

하지만 나는 몇 마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리고 형식 같은 것은 무시한 채 재빨리 기도를 끝내버렸다.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서는, 이제 와서 삶이 힘들다며 기도하는 것은 염지도, 자격도 없다고 느껴졌다.

그로부터 한 달 반쯤 지난 2015년 1월, 나를 침례 줬던 강현구 형제님께서 25년 만에 연락이 왔다. 즐거운 추억 속의 선교사님이었기에 반갑게 문자로 서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곧 형제님은 나를 댁으로 초대해 주셨다.

“형제님이 저활동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고, 저활동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형제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하여 번호를 알아냈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나의 개인적인 부분이나 성격까지 아시고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주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침례받았던 와드의 지역을 떠나 서울 동 스테이크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마침 강 형제님이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단으로 봉사하고 계셨다. 그분이 교회 지도자라는 걸 알았다면 부담스러워 만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어떤 큰 용기나 다짐을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 15년의 나의 달린 생각과 달리 나는 이 계기를 통해 아주 사소하고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도와줄 방법을 알고 계셨고, 강 형제님 역시 주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 중 한 명이였다.

강 형제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회개를 위해 감독님을 뵙고 잘못을 고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후련함과, 분명한 주님의 인도를 느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그리고 지도자를 뵙는 것이 두려워 두 번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긴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한시라도 빨리 감독님을 찾아뵈어 회개의 과정을 거치며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15년이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교회에 돌아와 보니 ‘복음’이라는 나무에 열린, ‘좋은 후손들’이라는 열매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알지니’라는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교회에 충실히 남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이 복음이 정말로 참되다는 확신과 다른 선택을 했던 스스로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다시금 느꼈다.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 반이 넘었다. 한때는 교회를 떠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근심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계셨으며 내가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계셨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의지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만 있다면 어떠한 기도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내가 무심코 드린 영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말이다. ■

2018 FSY

대회 주제: "그리스도의 화평"

FSY의 중요한 목적은 상호 향상 모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8 FSY의 주제는 2018년도 상호 향상 모임 주제와 같으며, 1) 경전에 흠뻑 취하는 방법, 2)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을 인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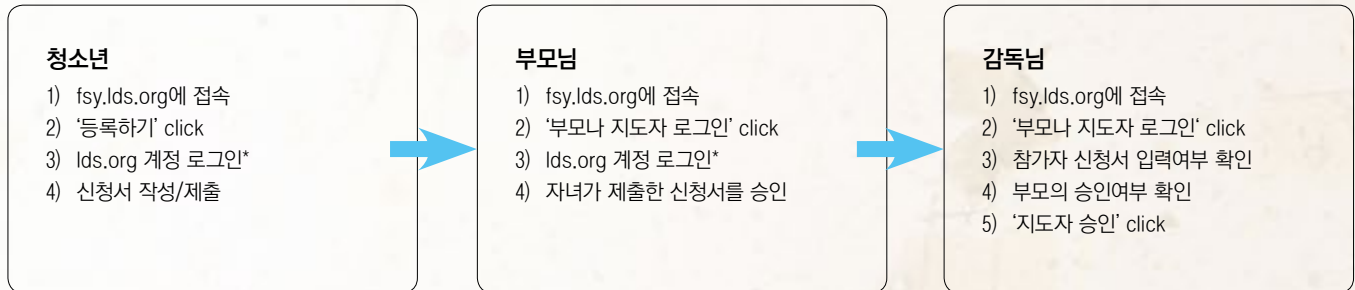
주제 성구

"내게서 배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의 영의 온유함으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는 내 안에서 화평을 누리리라."(교리와 성약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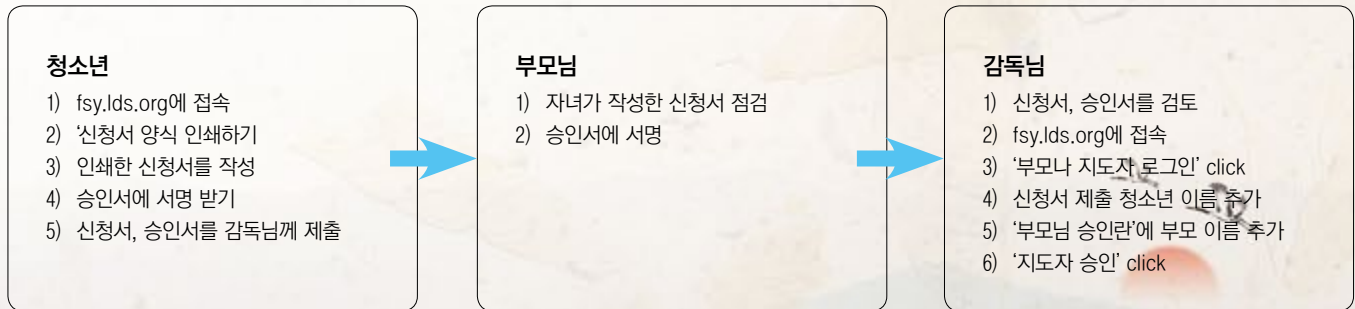
FSY 등록 한 눈에 보기

청소년과 부모 모두 회원이라면?



*새 계정 생성 시 회원 번호가 필요함 (회원 번호는 워드 서기에 문의)

청소년이나 부모가 비회원이라면?



등록

- 기간: 2018년 1월 1일~7월 22일(23시 59분 마감)
- 방법: 홈페이지(fsy.lds.org)

참가 대상

- 대회 시작일 기준으로 만 14~19세
- 국내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 소속된 청소년
- * 국외 지역에 소속된 청소년이 방문하여 참석할 수 없음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 9 명



김명훈 장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선교부



노경주 자매
서울남 스테이크
송파 와드
일본 도쿄 선교부



박재영 장로
광주 스테이크
충장 와드
대만 타이베이
선교부



이다은 자매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서울 남 선교부



이정인 자매
순천 지방부
여수 지부
서울 선교부



주은수 자매
경기 스테이크
수지 와드
부산 선교부



지혜인 자매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대전 선교부



진승주 장로
전주 스테이크
중앙 와드
서울 선교부



최소연 자매
경기 스테이크
분당 와드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전 스테이크

유성 와드 감독: 최남현 형제(전임: 김형진 형제)

서울 스테이크

금촌 와드가 파주 와드로 이름이 변경됨

서울 서 스테이크

인천1 와드 감독: 김종훈 형제(전임: 최준영 형제)

지역 소식의 모든 기사와 사진들은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홈페이지: www.lds.or.kr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ldschurchkorea/

2018 FSY 고문 모집 안내

이전 대회에서는 지도자들이 추천한 청년 독신 성인들을 중심으로 FSY 운영 위원 보조 및 조 고문 부름을 주었지만, 2018 FSY에서는 청년들이 해당 임무에 자원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청년들은 선교 사업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함으로써 주님의 영을 더욱 풍성히 축복받게 될 것이다. 원하는 청년 독신 성인들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fsykorea@gmail.com으로 발송함으로써 운영 위원 보조 혹은 조 고문에 지원할 수 있다.

* fsy.lds.org에 접속하여 자료 탭으로 들어가면, 2018년 대회 자료 목록에서 "운영고문 보조 및 조 고문 지원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